

女컬링, 중국에 기권승...4강행 순항

12-5로 이기고 4승째...亞게임 결승전 패배 되잖아

여자컬링 대표팀이 중국을 완파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4승째를 수확, 4강 진출을 향해 순항했다.

특히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만나 패했던 중국을 상대로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완벽한 설욕을 했다.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여자컬링 대표팀은 1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5차전에서 중국(스킵 양빙위)을 12-5로 제압했다.

대표팀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결승에서 5-12로 패했던 점수를 그대로 되갚아 줬다.

예선전적은 4승 1패가 됐다. 4승은 한국 컬링이 올림픽에서 거둔 최다승이다.

한국 컬링이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여자컬링이 예선 3승 6패로 최종 8위를 거뒀다.

소치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도청 소속이었고, 이번 올림픽 국가대표는 경북체육회 선수들이다.

일본과 함께 예선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대표팀은 플레이오프(PO)와 메달권이 라는 더 높은 무대를 바라본다.

컬링은 예선에서 10개 참가국이 한 차례씩 맞붙고 상위 4위에 들어야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세계랭킹 8위인 한국은 세계랭킹 1위

캐나다와 2위 스위스, 4위 영국을 꺾고 아시아 라이벌이자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동메달을 딴 중국(세계랭킹 10위)까지 제치며 청신호를 밝혔다.

한국은 김초희(리드), 김선영(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은정 순으로 각각 2개의 스톤을 던지며 중국을 무너뜨렸다. 1~4차전에서는 리드 김영미가 첫 주자로 나섰다지만, 이날은 후보 김초희가 대신 투입돼 활약했다.

한국은 후공을 잡은 1엔드부터 확실한 기선제압을 했다. 중국의 잇따른 실책을 기회 삼아 3점을 대량 획득했다.

2엔드 1실점으로 선방한 한국은 다시 후공을 잡은 3엔드에 또 3득점, 6-1로 달아났다.

4엔드에도 1점만 내준 한국은 5엔드에는 4점을 쏟아냈다.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중앙(버튼)에 있는 한국 스톤들 사이에서 중국 스톤 1개를 쳐내며 어렵지 않게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점수는 10-2로 벌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6엔드 2점을 가져갔고, 7엔드에는 1점을 스틸(선공 팀이 득점) 하며 10-5로 따라왔다. 한국은 침착하게 8엔드 2점을 추가하며 다시 격차를 벌였다.

승선이 없어진 중국은 굳은 표정으로 패배를 시인하며 악수를 청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한국 선수들이 승기를 잡은 마지막 스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후 더 기대되는 피겨 차준환

올림픽 데뷔 무대에서 15위

‘피겨왕자’ 차준환(17·휘문고·사진)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차준환은 17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65.1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점수 83.43점과 합친 총점은 248.59점으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싱글 30명의 선수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쇼트와 프리, 총점 모두 지난 시즌 받은 최고점을 경신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개인 최고점이다.

2001년생인 차준환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남자 싱글 선수 가운데 가장 어리다.

이번 시즌에야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그나마 부상으로 국제대회를 한 차례밖에 뛰지 못한 차준환이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최고의 연기를 펼친 것이다.

차준환은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남자 싱글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니어로 데뷔한 이번 시즌 초반 결핵에 시달렸다.

쿼드러플 점프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다가 고관절과 발목에 통증이 생겼고 부상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에서 9위에 그쳤다.

발에 맞지 않는 부츠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 선발전에선 1차 3위, 2차 2위를 했다.

차준환은 그러나 3차 선발전을 앞두고 프리스케이팅 음악과 구성을 바꾸는 승부수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고, 16년 만에 올림픽 남자 싱글에 출전하는 주인공이 됐다.

극적인 출전권 획득은 차준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20년 만에 올림픽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한 차준환은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정성일이 기록한 17위를 뛰어넘는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로 올림픽 데뷔전을 마쳤다.

첫 올림픽 무대에 보여준 차준환의 선전은 4년 후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어린 차준환이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가면 4년 후에는 지금의 성적을 뛰어넘어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새 역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빙속 ‘깜짝 스타’ 이번엔 김민석

亞 선수 최초 1500m 동메달 ‘제2의 이승훈’ 탄생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빙속에서 ‘깜짝 스타’가 탄생했다.

김민석(성남시청)은 지난 1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500m 경기에서 1분44초93의 기록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에 이어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19세 김민석의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이자, 올림픽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선수의 첫 메달이다.

김민석은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1,500m 금메달을 차지한 아시아 최강자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 유망주로 주목받지 못했다.

남자 1,500m는 그동안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과 북미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었고, 실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대회에서도 김민석은 메달권에 들어보지 못했다.

지난 시즌 강릉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선수권대회에서도 1,500m 5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다.

김민석 스스로도 “메달 후보로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 ‘뭔가 보여주겠다’는 오기도 생긴다”고 각오를 다질 정도였다.

결국 김민석은 그 ‘오기’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며 그야말로 ‘사고’를 쳤다.

김민석 이전에도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유난히 ‘깜짝 스타’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첫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윤만도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서 그야말로 난데없는 메달을 땀다.

당시 선수단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동계

올림픽 첫 메달이 예상되던 쇼트트랙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한 김윤만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은메달을 땀다.

1위와 불과 0.01초 차이였다.

밴쿠버올림픽에선 모태범과 이승훈이 잇따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남자 500m에서 토리노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이강석의 메달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고 있을 때 21살의 어린 모태범이 갑자기 튀어나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이었다.

이승훈이 남자 5,000m에서 스벤 크라머에 이어 은메달을 따며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장거리 빙속 메달리스트가 됐을 때에도 이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승훈은 며칠 후엔 10,000m 금메달까지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척박한 빙속 장거리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승훈을 연상시켰던 10대 기대주 김민석은 ‘제2의 이승훈’이라는 별명 그대로 또 한 명의 빙속 깜짝 스타가 됐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올림픽플라자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거머쥔 김민석(왼쪽)과 여자 대표팀 김현영(가운데), 박지우(오른쪽)가 설을 맞아 전통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